



대한건설협회 도회·도건설교통국 장보기 행사 대한건설협회 도회 (회장오인철)와 도건설교통국(국장 박재명) 임직원들은 25일 횡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.

동홍천~양양 고속도 6월 조기 개통

올 12월 예정서 6개월 앞당겨 동홍천~양양 고속도로가 오는 6월 조기 개통된다. 기획재정부는 25일 조달청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'제1차 재정관리점 검회의'를 열고 동홍천~양양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이 포함된 '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'을 시행하기로 했다.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은 △의무적 선금률 10%p

상향 △계약절차 단축 △보조사 업 절차 단축 △용자·출연 등 신속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. 특히 이날 회의에서 사회간접 자본(SOC) 사업 등 주요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해 조기집행의 체 감도를 높이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~양양 고속국도를 6개월 앞당긴 6월까지 개통할 방침이다. 휴가철 관광수요 효과

동홍천~양양 고속국도 조기 개통



적 대처,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, 연계교통망 조속 구축 등 조기개 통에 따른 총편익이 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 안은복